

시간은 살 같이 지나가니 공부 미루지 마세요



요덕사 회주 대선 스님



절월의 햇살은 거칠고 뜨겁다. 강한 햇살과 지기(地氣)를 흠뻑 받아들이는 나무들의 질푸른 잎들이 바람에 사운거린다. 나무들이 만들어내는 녹색 그늘이 눈을 시원하게 해준다. 깊은 울음소리를 토해내고 있는 두견새와 숨넘어가듯 급박하게 울어대는 매미의 울음소리는 한 여름 숲의 정적을 깨뜨린다. 요덕사를 가기 위해서는 아래 절인 흥련암을 거쳐야 한다. 흥련암은 연꽃으로 화장세계를 연출하고 있다. 활짝 핀 연꽃 위로 내려앉은 햇빛은 기품 있고 고결해 보인다. 바람결 따라 흔들리는 연꽃의 향기는 흥련암을 채우고도 남는다. 흥련암은 대선 스님이 연로하신 어머니를 위하여 생각을 절로 만든 사연을 안고 있다. 연꽃을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하여 연꽃을 만들고 그곳에 흥련을 심었다. 이제 흥련암의 연꽃은 사진애호가들이 물려드는 완주의 명물이 되었다.

대선 스님을 꼭 이때 만에 뵙는다. 스님은 비승비속(非僧非俗)으로 사는 이를 뭐하러 또 찾아왔느냐고 통을 놓는다. 자신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스님의 말씀은 이렇지만, 공부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온다. 스님의 푸른 눈빛과 카랑 카랑한 목소리는 변함이 없다. 도인의 경계는 '불이 얼음을 녹이면 다시는 얼음이 되지 않으며, 화살이 이미 시위를 떠나면 돌아올 기세가 없는 것과 같다'고 했던가. 대선 스님이 꼭 그러하다.

스님은 어렵게 공부했던 봉암사시절을 떠올렸다. 좁은 선방에 스무 명이 앉으면 서로 무릎이 닿을 정도인데도 사부대중을 받았다. 비구가 한 7~8명 정도 되었고, 비구니, 우바이, 우바새가 한 곳에 모여 공부를 했던 시절이었다. 환경은 그러했지만 그곳에 성철 스님과 향곡 스님이 계셨기에 공부에 대한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다.

“요즈음은 옛날에 비해 선방도 많고 수좌들도 더 많은데 왜 공부인이 나오지 않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해요. 공부인이 나오지 않으면 오합지졸이지, 뭐하겠어요? 밥만 축내는 것이지. 옛날 노스님들이 우리를 보고 ‘너희들 공부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간혹 들었어요. 육심인지는 몰라도 오십대 쯤 되는 수좌들을 보면 노스님들처럼 ‘너희들 공부하는 것 보면 죽도 밥도 아닌 것 같다’고 질타를 하고 싶어져요.”

대선 스님은 도봉산 망월사에서 천일을 세 번이나 보낸 삼천 일간이나 술잎, 쌀가루, 콩가루만을 먹으면서 장좌불와(長坐不臥) 수행을 했다. 감사의 복사자암에서는 한 겨울에도 방에 불을 넣지 않은 채

공 언 몸으로 화두를 잡고 사년동안 정진하였다. 스님은 수행은 그렇게 하는 줄 알고 평생을 위법방구의 정신으로 정진했다. 수좌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스님의 수행담이 회자되고 있다.

대선 스님은 그 시절이 그리운지 향곡과 성철 스님의 이야기를 풀어놓는다.

“향곡 스님은 남방도인이었어요. 향곡 스님 회상에서 살 때 그 분을 적 바라보기만 해도 ‘공부를 안 하면 저 양반이 나를 죽이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기골이 장대하고 눈빛이 형형했지. 화랑하고 결망진 것이 선방수좌들이 이끌림만한 모습을 타고난 참으로 멋이 있는 도인이었어요. 성철 스님은 말쑥하니 잘 생긴 것이 천재의 모습이었어. 눈빛이 살아있으면 서학 같은 모습이었지요.”

봉암사시절 두 스님께서는 한산과 습득처럼 짝이 되어 십 수 년을 같이 공부하고 법거랑을 나누었다.

대선 스님이 공부하던 시절은 나라가 가난하고 절집이 가난하여 모든 것이 부족한 시절이었다. 누더기 옷 한 벌이면 족했고, 밀컨 죽 한 그릇 먹고도 깨닫고야 말겠다는 분심과 기상은 하늘을 찌를 듯 했다.

“둔만 가지면 산호랑이 눈썹도 빼 먹을 수 있는 시대이니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도 승가는 세속과는 달라야 해요. 옛날에는 좌복이 이불이 되고 그것 하나로 견디면서 공부했어. 옛날에 노스님 아래에서 아프다고 하면 다른데 가서 알아보라 하고는 당장 쫓아 냈어. 그러나 아프다는 소리 할 수도 없고 그저 항상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했어. 그것이 공부인을 만들어내는 바탕이 되었던 거지. 빈도(貧道)로서 일종식하고 금식하고 탁발하고 그랬어. 기한이 발도심(飢寒發道心)이라고 춥고 배고플 때 도를 구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지는 법이여. 지금이라도 종단이 살아야 하면 가난을 자초하여 좀더 가난하게 살아야 해. 옛날의 종들은 그런 정신이 살아있어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어도 그 면모가 풋풋하고 때깔이 났어요.”

스님은 말미에 전두환 대통령 때 일어난 ‘10·27 법난’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때 우리가 새로이 발심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일”이라 했다.

오십대 수좌에게 “너희들 공부는 죽도 밥도 아냐” 질타하고 공부 안하고 그냥 살다 죽는 것은 ‘송장 하나 지키다 가는 것’

지금은 그러한 도인들이 귀한 시절이고 설령 지도자가 있고 좋은 도량이 있다 하더라도 원초적으로 요즈음 사람들의 근기가 약해서 공부인이 나오기가 힘들다는 것이 스님의 견해이다.

“옛사람이라고 다 근기가 강하고 요즈음 사람들라고 허약한 근기를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우주의 기를 받고 어머니, 아버지의 기운을 받는 것이 소우주인 우리의 몸입니다. 어머니 품속에서 나와서 모유를 먹어야 하는데 요즈음은 다들 소젖을 먹어놔요. 모유는 최고의 약성(藥性)이 함유되어 있으며, 시간에 따라서 아기의 몸이 맞게 맞추어지는 최고의 영양식인데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현대인들이라. 어머니의 품과 모유는 대근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참 안타깝지요. 시대의 흐름을 외면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좀 알아야 해요.”

요즈음 행자들이나 사미승들은 다들 집에서 귀하게 자라서인지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 하고, 좋은 것만 먹으려 하고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한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도인이 나오지 않아요. 구식으로 돌아가야 도인이 나오지 현대 신식으로 해서 도인이 나오지 않아요.”

“10·27법난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었고, 불교 근대사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곳에도 전화가 왔고, 흥련암보다 더 못한 움막집을 짓고 사는데도 군관민 합동으로 해서 쳐들어왔더데. 전국의 사람들이 그놈들의 군홧발에 짓밟혔을 때 월명암의 월인 스님 한 사람만이 큰소리쳐서, 군인들이 신발신고 법당에 올라오는 것 보고 ‘이놈들! 어디 감히 부처님도랑을 짓밟는가?’ 하고 호통을 쳤더니 그 모습이 너무나 당당하고 의연하여 그냥 갔다고 하더군.”

요즈음 ‘10·27 법난’ 과거규명 한다고 야단들인데 그것도 좋은 일이 아니야. 나는 잘했는데 저쪽이 잘못했다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잘못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때 출가발심으로 들어가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했어야지. 그렇게 했다던 종단의 위상이 지금보다는 훨씬 올라갔을 것이야.”

스님의 말씀은 거침없다. 남을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발전이 있단다. “예전에는 공부가 좀 시원찮다 싶으면 장군죽비로 죽어라고 막 때렸지”라고 덧붙였다. “그때는 공부하다가 죽으면 영광으로 생각할 때”였기에 맞는 이나 때리는 이나 공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가 없었다. 하지만 요즈음의 선방분위기는 예전과 달라서 그렇게 때렸다가는 소송이 걸릴지도 모를 일이라면서 쓸쓸해

新제품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국내 유통중인 모든 양초 제조. 판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인터넷 홈페이지 www.shcandle.net

전화 031)766-0242~3 / 팩스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소비자 무료전화 : 080-0766-8888

수공예 양초

한봉밀납양초의 특징

1. 그을음이 없습니다.
2.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항균효과는 물론 실내 공기 정화에 도움을 줍니다. (아토피등 피부질환 및 호흡기 질환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3. 한봉 밀집에서 추출한 우리의 밀납이 자연환경과 건강을 생각합니다.

※고·목조건물, 목조각품(사찰의)탱화 등에 침범을 막아주어 문화재 보존에 다소 도움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한봉밀납양초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상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중요합니다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빠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현불상!**
02)2004-8216
☎ 031-766-062 (주)현대불교신문사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6cm]